

Nr. 556 (2025 - 03- 04)

십자가



Licht und Salz

십자가

편집부

3월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사순절은 3월 5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군사와 대사제들의 경비병들에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공동체 가족분들 모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라는 재의 예식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음지라도 누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1월 26일 설날 미사 1

십자가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구약성경 통독 소감 / 박경하 세실리아, 전정화 미카엘라, 정희영 카타리
나, 진지연 요안나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1월 26일 설날 미사 2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오로 사도는 간곡히 권고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썃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신 소유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호경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

허광철 요셉 신부님

부활대축일 세례를 목표로 뮌헨 본당에서는 4명의 예비자가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교리 시간은 보통 자기 소개와 성당에 오게 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호경'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호경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라 소개하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정성껏 성호경을 긋는 예비신자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호경은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그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사제가 축복을 할 때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하듯, 성호경은 먼저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이들은 악과 죄를 멀리합니다. 또한 성호경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고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일생 짊어지고 살고싶다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사순시기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두가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일년에 한 번 십자가를 따로 떼어 묵상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35년 그의 모친 헬레나 성녀가 발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양한데서 시작된 축일입니다.

이날 감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구원을 이루셨으니,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인간이 만났음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죄와 고통과 죽음에 패배한 인간이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상 여정에는 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 이 건 믿지 않는 이 건 자신들의 한계를 십자가라 부릅니다. 아마 사람의 수만큼 더 많고 다른 다양한 십자가가 이 세상



1월 26일 설날 미사후 세배 1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 20—6, 2

형제 여러분, 20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1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6, 1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에는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쉽게 '나의 십자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송에서 보듯, 우리 신앙 안에서 십자가란 무엇보다 '하느님과 만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에 주안점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도록, 다시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과 관계되어져야 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커다란 십자가였습니다. 1주일이면 갈 거리를 40여년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체험한 죄와 고통과 죽음은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현금에 자신의 한계나 관계의 어긋남, 가정과 공동체의 어려움, 세상의 폭력과 어둠 등을 묵도하며 하느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라 칭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볼 때, 십자가의 두 번째 특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과업일 뿐이지 십자가라 해서 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볼 때,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십자가의 세 번째 특징은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스스로 기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스스로 질 수 있을 때에만 나의 십자가는 십자가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짊어지는 것이 가볍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끝으로 십자가는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 엄마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 목숨을 드릴테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바쳐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바쳐지지 않는 삶은 아마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봉헌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시기에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되도록이면 자주 많이 십자 성호를 그으며 자신을 성화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갈 은총과 용기를 청합시다.

"십자가가 어디서 오는지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당신에게 증거할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요한 비안네)



1월 26일 설날 미사 후 세배 2



1월 26일 설날 미사 후 세배 3

십자가

전영민 수산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심볼이다. 나 자신에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내 삶의 방향계, 내가 지켜야 할 신앙적 윤리, 내 삶의 원동력 인 동시에 걸림돌이 앞을 가로지를 때 넘어야 할 디딤돌인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기만을 바란다면 거기서 무슨 발전을 기대 할 것인가.

굴곡 없는 일상은 나태한 삶을 유발하게되고 그런 삶에서 향상된 일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지속되는 단일한 삶 만은 참을 수 없다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고통은 축복이라고 하는걸 많이 듣는다. 누구나 말 그대로 고통은 괴로워서 피하고 싶고 속히 지나가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련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고대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더욱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통이 축복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승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컨데, 근심없이 편안한 삶은 자칫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괴로움이 많은 속세를 바다

에 비유하여 고택 (苦海) 라고 한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잘 나가던 회사가 파산을 당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단든지 믿었던 친구로부터 횡령을 당하고 크나큰 금전의 손실을 갖게 되는 억장 무너질 일이라 든지 등등..

그런가 하면 암으로 투쟁하던 사람이 의사로부터 당신 몸안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을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완쾌된 그 사람의 인생은 온통 찬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례를 실제로 필자도 잘 알고있다. 공복 후의 식사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듯이 고통을 돌파한 후의 평화처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생에 아무런 즐거움도, 위로도 없다고 한다면 그는 배고픔을, 시련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내가 거주하는 모스부룩은 시골냄새가 풍기는 전원도시로 그 근지를 자전거로 일주를 한다든지 그냥 걸어서 산책을 하다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



2월 9일 병자 성사 1



2월 9일 병자 성사 2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잠깐 목례를 할 때도 있지만 짧은 기도도 올리면서 십자가를 보고 있노라면 담쟁이 넝쿨이나 풀꽃들의 새싹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엉키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십자가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담쟁이나 풀꽃의 어린 순이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 다 줄기를 뺏어간다면,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져서 더이상 자라지 못할 것이며 아예 시들어 죽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십자가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도움의 힘이며 동시에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다.

우리 모스부르크 성당의 본당신부님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도중에 있는 상태이다. 신앙인으로서 아직은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무언가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솔직이 말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독일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Jeder

muss sein Kreuz tragen -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한다는 뜻 인데, 기왕지사 질거라면 투덜대며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가는게 어떨까.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느님 만이 변함이 없다. 인내는 모든 것을 달성 할 수 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하느님만이 나를 충족시킨다." (Teresa von Avila 1515 - 1582)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

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월 23일 루크 유아세례 1

구약성경 통독을 마치며...

박경하 공동체실 실장님 (Gemeindehelferin)

3년전 성 아우구스티노 성경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꼭 구약성경을 통독하리라 했던 다짐이 기억납니다.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많은 유혹에 시달렸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있는 성경공부였지만 성경모임이 있는 주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나타해지기도 했었고, 일상에서의 이런저런 일들로 내면의 고요함을 찾지 못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저의 기도에 구약성경을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에 참여할수록 탈출기면 탈출기, 신명기면 신명기, 열왕기면 열왕기 전체를 읽고 숙제하고 묵상하고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도 당신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 중심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직설적이고 강하지만 때로는 더 간절하게 들렸던 하느님의 말씀. 구약성경 통독 과정을 통해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함께 통독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모임을 주관해주시고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명강의로 저희를 항상 격려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각자 기도를 통한 따뜻한 묵상 나눠주신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경모임, 화이팅! 9월에 함께 그리스로 성지순례 떠나요~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는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8) ||||



2월 23일 루크 유아세례 2



2월 23일 루크 유아세례 3

구약 일기를 마치며

전정화 미카엘라

뭘 헨 성당 성서 모임은 2021년 코로나 시국이 한창인 때 평소 성서 공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성당의 몇몇 자매님들이 창세기부터 차근 차근 함께 읽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성경 통독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최석환 신부님의 지도 하에 본격적인 온라인 성서 모임이 결성되었고, 2022년에는 허광철 본당 신부님의 지도하에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지난 해 2024년 12월에 지난 3년 반 가량의 시간에 걸쳐 구약 성경 통독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구약 성경과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가졌던 하느님에 대한 인식 즉, 나와는 너무나 멀리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해 냉혹하게 심판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느님이라는 인식에서 한없이 자비하신 분,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분, 그리고 인간과 맺은 계약에 언제나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저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심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에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왕은 굴곡지지만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되는 때 순간마다 하느님께 매달리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위기의 순간 마다 다윗을 구해 주셨고 많은 은총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가장 큰 은총의 순간에 하느님을 잠시 잊고 자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취하였으며 부하를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탄 예언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 받자 곧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게 되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중대한 인간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다윗의 생애 내 내보살피시고 그 이후 그 자손들 에게까지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2월 23일 루크 유아세례 4



2월 23일 루크 유아세례 5

등장했던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들 중 어쩌면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다윗은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건 가장 기쁜 순간 이건 간에 자신의 뿌리를 항상 하느님께 두고 하느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더 없는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느님의 아버지와 같은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편 23 (시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 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은 나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안식처와 같고 지친 나의 마음을 달래 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한 시편 8장 5절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한 시편의 저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주 속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떠올리며 매 순간 감사함을 잊지 말자 다짐해 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지혜서 2장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현실에서 이리저리 세속적인 풍파에 흔들리더라도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을 매 순간 하느님께 고정시키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닮은 모습을 알기 위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잘 읽혔던 것은 아닙니다. 성서 모임을 위한 숙제를 마치기 위해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

의무감에 읽기 시작한 성경이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 구약 성경을 끝까지 마치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에 설레기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수의 성서 모임 신자들의 위해 매 순간 명강의를 해 주셨던 신부님들과 함께 해 주신 성서 모임 자매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에어랑엔 공소 설날 세배 1

구약성경 모임 소감문

정희영 카타리나

아 직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화두였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함께한 성경 공부
가 어느덧 구약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수 많은
유혹에 싸우면서 고민과 갈등의 시간도 많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올
바르게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고마우신 신부님과 자매님들께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며 나눈 지혜와 배움이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도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어 공부할 신약 부분은 더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
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에어랑엔 공소 설날 세배 2

구약성경 모임 소감문

진지연 요안나

나는 아주 어릴적부터 하느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해오며 늘 성서에 관해서는 제대로 통독을 해 오지 못하여 늘 부끄러운 종교생활을 해온 듯 하였다.

매번 성서를 펼치면서 첫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누가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난자는 벌을 받고 등에 어려운 이름과 무서운 말씀에 파묻히면서 성서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기가 늘 어려워지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주일에 미사 말씀에서 성서의 말씀 내용을 듣고 말씀을 통한 해석과 인용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지하며 그렇게 지내온 종교 생활속에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 종교인으로 여기며,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 하는것이 나의 숙제이자, 의무라 언젠가 꼭 통독 해야지 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2021년 한창 코로나로 지쳐있었던 어느날 한인 성당 주임신부님 아래 온라인으로 하는 성서 공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허광철 요셉 주임 신부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면서, 2022년 2월 16일 신명기를 시작으로 뮌헨 성당 아우구스티노 온라인 성서 공부 모임을 통해 매달 성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며, 지금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가끔은 개인적인 사유로 성서 공부 모임에 함께 하지 못하는 날에는 다음 성서 모임날 까지 늘 숙제를 다 못한 아이 마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만큼 이 성서공부가 나에게 주는 에너지는 대단하였다.

성서공부를 시작으로 나의 전반적인 생활은 활기를 이루었고 나날이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이루어 지고 있다.

나는 대략 3년 동안 구약성서를 공부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이사야 41:10의 말씀,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는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의 역사에 늘 두려움이라

는 감정이 먼저 와닿는 나의 믿음 생활에 큰 희망과 의지가 되어 더욱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며,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신다. 또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며, 힘든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구약성서를 읽으며 나는 인간과 신의 관계,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믿음과 시련,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 출애굽기의 해방, 예언서들의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까지 구약성서는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인간의 삶과 도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늘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 보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두려움을 먼저 느꼈던 나의 믿음이 이 구약성서 공부를 통해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크나큰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고민과 내용은 나의 믿음 생활을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다시금 깨닫고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느낀다. 구약성서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글을 쓰며 성서공부를 통하여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허광철 요셉 신부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의 자매님들과 성서공부 모임을 통해 소중한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수 있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er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